

▼증권 디이제스트



한국투자증권

노녹인 파워스텝다운형
'TRUE ELS' 100억 모집

한국투자증권은 오는 14일까지 홍콩 H지수(HSCEI), S&P500, 유로스탁스 50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노녹인 파워스텝다운형 'TRUE ELS 9939회'를 총 100억원 한도로 모집한다. 이 상품은 3년 만기 6개월 단위 조기상환형 구조로 6개월마다 모든 기초자산 가격이 최초 기준가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이상이면 연 6.1%의 수익을 지급한다.

만약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만기 시점의 모든 기초자산 가격(종가 기준)이 최초기준가의 60% 이상이면 18.3%(연6.1%)의 수익이 지급된다. /김문호 기자

KB증권

리브메이트 주식 첫거래
5000포인트 증정 이벤트

KB증권은 리브메이트(Liiv Mate)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KB증권과 함께 주식 첫 거래'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리브메이트는 KB금융그룹 통합 멤버십 플랫폼으로, 적립된 포인트는 제휴처나 포인트리 쇼핑몰에서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또한 KB증권 또는 KB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3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하며, 리브메이트 서비스를 가입하고 주식(1백만원 이상)을 최초로 거래하는 선착순 2,000명의 고객에게 5000 포인트리(1포인트리=1원)를 증정한다. /김문호 기자



삼성증권

“연금 재테크로 경품 팡팡”

삼성증권은 오는 3월 30일까지 IRP 또는 연금저축에 신규 가입, 이전하거나 추가 납입하는 기존고객을 대상으로 경품을 지급하는 ‘연금 재테크’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증권에서 이벤트 기간 내에 IRP 또는 연금저축에 10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거나 타 금융기관에서 100만원 이상 연금을 이전한 고객은 최대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삼성증권에 잔고 10만원 이하의 IRP나 연금저축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300만원 이상 납입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각각 1매씩 최대 2매까지 받을 수 있다. /김문호 기자

새 정부 ‘새 지수’, 하락장에 더 빠지네

(KRX300·KRX ESG)

같은 기간 코스피보다 더 떨어져
사회책임경영지수도 낮은 수익률
“장기적으로 좋은 성과낼 것” 전망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탄생한 두 지수(KRX300·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가 코스피 지수보다 더 큰 하락세를 보이며 고전하고 있다. 시장수익률을 웃돌 것으로 예상했던 지수가 정반대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

KRX300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5일 탄생했다. 코스피 232개, 코스닥 68개 종목으로 구성된 해당 지수는 최근 5년간 평균수익률이 5.1%로 코스피200(4.5%)을 웃돌았다. 하지만 이달 들어 12일까지 KRX300 지수는 7.48%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지수(-7.06%)의 하락세보다 더 떨어졌고, 코스피200 지수(-7.57%)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KRX300 지수는 주로 대기업과 바이오 주가를 추종하고 있어 최근 하락장에서 하락폭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최근 들어 고평가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종목



이 대거 편입된 KRX300 지수가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시 조정장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연기금 벤치마크(BM) 지수 변경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코스피200 지수와 다를 바 없다면 굳이 벤치마크 지수를 바꿀 이유가 없다.

아울러 내달 23일께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및 인덱스 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밝힌 국내 자산운용사도 난감해졌다. 출시를 앞두고 국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상장 기대감이 한풀 꺾였기 때문이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정부 코스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시작된 KRX300

었다. 출범 당시 지난 6년간 해당 지수에 소속된 종목의 지수상승률이 70.19%에 달해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 상승률(38.92%)을 압도하는 것으로 알려지며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역시 하락장 속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이달 들어 KRX ESG 사회책임경영지수(S)는 7.06% 하락하며 코스피 지수와 다를 바 없는 수익률을 기록했다.

여기에 자산운용사도 해당 지수를 활용한 상품 출시가 활발하지 않다. 지난해 말 국내 ETF시장의 75.7%를 점유(순자산가치 기준)하고 있는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지수 대신 모건스탠리인터네셔널(MSCI) 지수를 활용한 ESG ETF를 지난 7일 선보였다.

이에 대해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ESG가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투자 트렌드가 되고 있지만 국내 ESG 평가는 아직 자리잡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때문에 거래소가 상장한 지수보다는 오랜기간 투자를 하고 노하우가 쌓인 MSCI 지수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손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대기업, 물들어올때 노 젓는다… 회사채 증액 발행 이어져

수요예측 실시 결과 모집액 넘어서
미국발 금리인상 우려에 자금 확보

인상을 전망하고 있고, 속도도 빨라질 것이란 우려가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부담도 커진다.

12일 투자금융(IB)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캐피탈은 지난 6일 2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앞두고 실시한 수요예측에 2900억원의 매수주문이 몰렸다. 회사는 2300억원 규모로 증액 발행키로 했다.

롯데오토리스(A0)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증액 발행한다.

호텔롯데(AA0)는 지난 1일 1500억원 규모 회사채 발행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 결과 모집액의 세 배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다. 3년물 1000억원 모집에 1400억원, 5년물 500억원 모집에 1100억원 등 총 1500억원어치 매수주문이 집계됐다. 호텔롯데는 2500

억원으로 발행액을 늘렸다.

최근 국내 신용평가사들은 호텔롯데에 대한 신용평가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러한 전망 조정은 최근 면세점 산업 전반의 영업환경이 악화된 데다 중국 관광객에 집중된 사업구조로 인해 사업안정성과 수익성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한진도 발행액을 780억원으로 늘렸다. 1년6개월 만기 회사채 5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30일 수요예측에 1040억원의 매수 주문이 몰리며, 이 같은 결정을 한 것.

한국금융지주는 1000억원 가량을 조달하려다 2000억원으로 발행액을 늘렸다.

AJ렌터카도 발행액을 5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늘렸다.

LG화학은 총 5000억원의 회사채에 대한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한편 증액 발행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기업 대부분은 신용등급 ‘A’나 ‘AA-’ 이상의 우량기업으로, 최근 회사채 품귀 현상으로 기관투자가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다.

크레딧 시장 한 관계자는 “초저금리 기조가 심해지면서 금리가 높은 회사채, 특히 우량기업의 크레딧 물량이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도 글로벌 경기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따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유동성 확보를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공사채 발행 부진에 따른 회사채 시장의 ‘반사이익’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다. 공기업 부채 감축 계획에 따라 기존 공사채에 투자하던 연기금, 기관 등의 자금이 회사채로 이동하면서 기업들의 조달 비용이 줄었다.

/김문호 기자 kmh@

건설업체, 협력사 공사대금 조기 지급

건설업체가 설을 앞두고 협력업체 공사대금 등을 미리 지급하는 등 상생협력을 펼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동양건설산업 등은 협력업체의 원자재값과 임금, 상여금 등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있다.

우선 호반건설은 공사 및 물품 대금 1300여억 원을 13일 조기 지급한다. 호반건설은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협력사의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매년 명절마다 협력사의 자금운용을 위해 자금을 조기 지급해 왔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설 전에 협력업

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협력회사 대금 조기 지급은 지난 주석에 이어 두 번째다.

동양건설산업, 라인건설 등도 납품 대금을 설 연휴 이전에 지급하기로 했으며 공공기관도 명절 전 공사대금 지급 계획을 내놓고 있다.

서울시는 ‘설 대비 체불임금 방지대책 추진계획’에 따라 시와 계약한 업체에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다. 경기도 구리시도 40여개 업체에 30억원의 공사대금을 준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현장에는 임금, 공사대금 체불 등 하도급간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며 “명절을 앞두고 주요 건설사들의 상생 행보가 협력사와의 관계 강화는 물론 품질 향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 기자 peace@

덩치커진 삼성전자, 글로벌 시총 3단계 ↓

삼성전자 덩치가 커졌지만 글로벌 시총 순위는 18위로 3계단 하락했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글로벌 시총 상위 100개 상장사의 시총 합계액은 21조5220억 달러(약 2경 3394조원)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상위 100개 상장사의 시총보다 27.5% 증가한 것이다.

시총 상위 10위 이내 최상위 기업들의 순위 변화를 보면 중국 기업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1년 전에는 모두 미국 기업이었던 ‘글로벌 시총 톱텐(Top 10)’ 명단에 중국 기업 3개가 신규 진입했다.

톈센트(5494억 달러)는 시총이 1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나 순위도 14위에서 6위로 뛰어 올랐다.

또 알리바바(4797억 달러)는 13위에서 8위로, 중국공상은행(472억 달러)은 16

위에서 9위로 각각 상승했다.

중국 기업의 약진으로 기존에 10위 안에 들었던 기업 중 액슨모빌(7위→12위)과 존슨앤드존슨(8위→11위), 웨스파고(10위→14위)가 10위권 밖으로 밀렸다.

삼성전자(2831억 달러) 시총 순위는 기존 15위에서 18위로 세 계단 낮아졌다. 시총은 16.8% 불어났으나 글로벌 증시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다른 기업들이 시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해 순위가 하락했다.

다른 국내 시총 상위 기업들은 SK하이닉스(483억 달러)가 289위로 300위 안에 들었고 셀트리온(347억 달러)이 442위, 현대차(329억 달러)는 470위였다.

글로벌 시총 1위는 애플(8144억 달러)이었다. 구글(7749억 달러)이 2위, 마이크로소프트(7067억 달러)는 3위에 올랐다.

/김문호 기자